

## 신청자 귀하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이민 비자(사증)를 발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귀하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 및 고용관계의 안정적인 근거나 이유 등이 귀하가 미국에서 단기 체류한 후 반드시 귀국할 만큼 확실하거나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이민국화법 제214조 b 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 즉 미국여행 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는 법 규정상 심사관은 신청자가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국할 의향이 있다는 증거 자료로는 가족관계(연고), 고용관계(직업상황), 그 외의 경제적인 안정도에 관한 서류들입니다. 확실한 기반이 아직 상대적으로 약한 젊은 신청자들의 경우, 심사관은 교육정도나 한국에서의 장래 계획, 전망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각기 상황이 다르므로 어떤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에 대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 미국에서 정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 기타 \_\_\_\_\_

거절된 경우, 단지 서류의 양만 늘려서 재 신청한다고 다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 고용관계 등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을 하신다면, 거절횟수만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심사관은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추천서도 참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천서가 본인의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보여 주는 근거 서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비자 발급 여부는 본인 자신의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미국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되는 모든 서류는 재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신청 전이나 후에 FAX 나 우편물로 보낸 서류를 일일이 대조 및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214 조 b 항에 의거한 비자 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귀하의 신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귀하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700-2510 으로 전화해 주십시오.